



Global Packaging News

Germany

‘국제 식품 전시회 아누가2023’ 오는 10월
식품업계 ‘극적 돌파구’ 기대...10월 7일~11일 쾰른

전 세계 식품산업이 손꼽아 기다려온 B2B 식 전시회 ‘아누가(anuga)’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다.



▲ 국제 식품 전시회 ‘아누가2023’ 이 오는 10월 7일 막을 올린다.

올해도 벌써 100개국을 넘는 국가에서 7,500개사 이상 참가 소식을 알렸다. 284,000㎡(8만 6,000평)의 전시장에 굵직한 스테디셀러와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이 가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동관 포함, 약 100개사가 참가해 업계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올해 아누가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 빛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아누가의 참가사와 방문객 해외 비중은 90%였다. 올해는 본격적인 엔데믹 이후 첫 개최인 만큼, 107개국의 7,972개사가 참가하고, 201개국에서 약 17만 명이 방문했던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열기가 재연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 식품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누가는 압도적인 제품 가짓수를 선보인다. 다양한 소스와 식자재, 밀키트, 간편식, 냉동·냉장식품, 제과·제빵류, 논알콜 음료부터 와인

과 맥주 등 전시 품목만 무려 100가지가 넘는다. 아누가2023은 국내 식품 업계 최대 화두인 '지속 가능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저당·저칼로리 제품의 시장 지배력은 최고점에 이르렀고, 친환경 식생활과 비건식에 관한 관심도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소비를 이끄는 시장이 유럽과 미주에 밀집되어 있다는 점은 올해 아누가를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 유통업계에 아누가는 극적인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 대내외 정세, 고물가·고임금·고유가삼중고에, 아스파탐 논란까지, 올해 유독 식품산업에 악재가 잇따랐다. 아누가 2023은 제로 열풍을 이어갈 대체재를 모색하고, 시장 변동성을 기회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할 열쇠다.

아누가2023 입장권 구매는 공식 홈페이지 티켓샵 (anuga.com/trade-fair/tickets)에서 가능하다. 아누가2023 방문 및 티켓 구매에 관한 사항은 주최사 쉐르메쎬의 공식 한국 대표부 라인메쎬(주) (02-798-4105, claire@rmesse.co.kr)에 문의할 수 있다.

USA

세포 배양 닭고기 제품의 라벨링 승인

미국 농무부 6월초, 해당 라벨 승인

앞으로 업사이드 푸드(Upside Foods)와 잇 저스트(Eat Just)가 생산한 세포 배양 닭고기 제품에 'cell-cultivated chicken' 라벨이 붙게 된다. 미국 농무부 (USDA)는 6월초 두 회사의 해당 라벨을 승인했다.

이번 라벨 승인은 USDA가 세포 배양 닭 제품 부문에서 승인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승인은 수산물 아닌 세포 배양 육류 제품의 모든 라벨을 승

인할 책임이 있는 USDA가 이 회사들이 제품의 판매를 위한 라벨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Upside Foods CEO이자 설립자인 우마 발레티(Uma Valeti)는 이번 USDA 결정에 대해 "USDA의 라벨 승인은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만들려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세포 배양 육류 제품에 적절하게 라벨링을 하는 방식에 대해 기업, 개인, 정치인 및 이익 단체들은 수년 동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021년 9월 USDA는 라벨링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구하기 위해 문서를 게시하였고, USDA는 이를 통해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하며 어떤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다. 문서 공개 후 몇 달 간 1,179개의 의견이 접수됐다. 전통 농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는 이러한 세포 배양 육류 제품에 육류와 관련된 용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세포 배양 육류 회사 및 옹호자들은 제품이 실제 육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육류 이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이 만들어진 방식을 잘 나타내는 투명한 라벨링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번에 'cell-cultivated chicken' 라벨을 USDA가 인정한 것은 USDA가 세포 배양 육류 제품에 육류를 나타내는 단어를 라벨링할 수 있게 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번 USDA 결정은 세포 배양육 지지자들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번 라벨링 결정은 Upside Food와 Eat Just의 2가지 특정 제품에 국한된다. USDA의 2023년 하반기 규제 안건 목록에 따르면 USDA는 2023년 말까지 이와 같은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에 대한 규칙 제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Eat Just의 앤드류 노이스(Andrew Noyes) 대변인은 제품에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 USDA와 몇 달 간 통찰력 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히며 USDA에 cultivated가 자사 및 전 세계 대부분의 해당 분야 회사들이 선호하는 용어라고 USDA에 전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현재 USDA와 협력하여 세포 배양 육류 제품에 대한 판매 승인 절차 중이다. USDA로부터 육류 재배 시설 및 절차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받고 GOI(Grant of Inspection)를 발행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Upside Foods의 닭고기 제품은 USDA로부터 GOI를 획득하는 즉시 상업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Upside Foods의 제품은 최종 규제 단계를 완료한 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슐랭 3스타 셰프 도미티크 크렌(Dominique Crenn)의 레스토랑인 Bar Crenn을 시작으로 엄선된 레스토랑 파트너를 통해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세포 배양육 제품에 대한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Upside Foods의 제품이 USDA 라벨링 요건을 충족시키며 상업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결정은 지속가능성,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SA

지속가능한 포장 추진' 켈로그,

'지속가능한 패키징' 논의

프링클스, 팝 타르트, 코코팝스와 같은 인기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다국적 식품 제조업체 켈로그

(Kellogg)가 지속가능한 포장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한다.

켈로그의 전자상거래 채널 개발책임자인 그레고르 머레이(Gregor Murray)는 최근 Global Connected Packaging Summit에 참석해 제조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지속 가능한 포장' 추진 안에 대해 연설했다.

머레이는 "식품 산업은 오래 전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의제가 아니다"면서 "켈로그 내 각 부서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그의 연설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소매업체 Albertsons와 함께하는 매장 내 재활용 계획과 시리얼 상자용인 '재활용 종이 라이너'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머레이는 필수가 아닌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유리와 같은 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포장 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여기에 항상 존재하는 재활용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 당국은 버려지는 전체 폐기물의 50~55%를 재활용하지만, 나머지 폐기물의 25%는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할 시장이 없다"면서 "제조업체들이 재활용하기 정말 어려운 단단한 플라스틱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레이는 지역 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 들은 아이디어를 인용하며,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했다.

그는 "내가 들어본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는 14

살짜리 아이가 ‘모든 제조업체가 3가지 크기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즉 모든 제조업체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상자나 병을 생산하는 경우 공급 사슬에 맞도록 설계된 3가지 크기와 무게가 서로 다르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들은 또한 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수년 동안 제조업체들과 함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야기해 봤지만, 아무도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단지 팩 크기를 표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머레이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조업체는 적극적으로 작업의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포장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원칙 세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ussia

비알코올성음료 디지털 라벨 시범 적용

모든 포장 유형의 비알코올성 음료

러시아 정부는 비알코올성 음료에 체스니 즈낙 (Chestniy ZNAK) 의무 라벨링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정부령 제858호와 비알코올성 음료에 체스

니 즈낙 라벨링을 의무 적용하는 정부령 제887호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량음료 등에 대한 라벨링 시범 적용 기간이 시행되며, 2024년 6월 1일부터 모든 포장 유형의 비알코올성 음료에 체스니 즈낙 라벨링이 의무화된다.

배경

체스니 즈낙 의무 라벨링 제도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디지털 라벨)를 제품에 부착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라벨링 시스템이다. 2019년부터 신발, 향수, 타이어 등 다양한 제품군에 도입되었으며, 식품의 경우 유제품과 포장된 생수 제품(2022년 12월),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2023년 4월)에 체스니 즈낙 의무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지에 따라 비알코올성 음료 또한 체스니 즈낙 라벨링 제도가 의무 적용되며, 해당 품목의 제조업체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체스니 즈낙 라벨링 시스템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비알코올성 음료 대상 품목

비알코올성 음료 대상 품목으로는 청량음료(탄산, 당류 첨가 포함), 주스, 착향음료, 식물성 원료 음료, 과일 또는 견과주스, 야채주스, 비발효 및 논알콜 음료, 과일과 베리류, 콩포트(과일을 설탕에 졸여 만드는 디저트), 크마스(호밀과 보리를 발효시켜 만든 저알코올 음료), 과일 음료 등이다.

의무 적용일시

제품 포장 유형에 따라 체스니 즈낙 라벨링의 의무 적용 시점이 다르게 적용된다. 유리, 폴리머 포장 청량음료(주스, 과일즙, 두유 등 식물성 음료

주체	발급 절차	
수입업체	STEP 1	러시아 유망기술발전센터(CRPT)에 디지털 라벨(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주문 (*) 신청 사이트(영문) : https://chestnyznak.ru/en/ (*) 문의처 : support@crpt.ru
	STEP 2	디지털 라벨 코드 발급 비용 CRPT에 지불(코드 한 개당 0.6루블(VAT포함))
	STEP 3	라벨링 구현을 위한 기술 솔루션 선택 (예 : 소기업은 간단한 인쇄 장치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라벨을 인쇄할 수 있으며, 중대형 기업의 경우 활판 인쇄술로 라벨을 주문하는 것이 더 적절함)
수출업체	STEP 4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를 수입업체로부터 수령, 상품에 부착 후 배송
수입업체	STEP 5	세관 통관 후 유통 시작했음을 체스니 즈낙 시스템에 보고

▲ 수출 식품의 체스니 즈낙 라벨 발급 및 시스템 등록 방법



및 콩포트 제외)는 2023년 12월 1일부터이며, 알 루미늄을 포함한 캔 음료(주스, 과일즙, 두유 등 식물성음료 및 콩포트 제외)는 2024년 3월 1일, 모든 유형의 포장에 담긴 비알콜성 음료는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 적용이 실시된다.

Colombia

가공식품앞면영양표시의무규정시행

2023년 6월 14일부터 실시

콜롬비아 보건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 앞면 영양 표시와 관련한 규정 (Resolucion 2492 de 2022)」이 시행됨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결의안 810호의 2, 3, 16, 25, 32, 37, 40조를 개정한 것으로 식품에 함유된 설탕, 나트륨, 감미료, 지방 등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적용 대상

사전 포장된 모든 가공식품으로 콜롬비아 내 생산 및 수입된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단, 일부 품목은 영양 표시 또는 앞면 경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시 기준

앞면 영양표시는 영양소 함량이 아래 표(Global Packaging News_05 사진 참조)에 기재된 기준치 이상의 경우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양식

- 괄각형 모양에 텍스트만 삽입된 검은색 마크로 변동됨. (Global Packaging News_06 참조)
- 괄각형 내에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설탕, 감미료 포함’이라는 텍스트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탕, 감미료 포함’이라는 텍스트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성분이 많을 경우 2~5개의 라벨을 부착할 수 있음.
- 모든 문자는 흰색 대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폰트는 ARIAL BOLO를 적용해야 함.
- 콜롬비아 보건부를 지칭하는 ‘MINSALUD’도 흰색으로 표기 되어야 함.

추진 일정

- 시행일 : 2023년 6월 14일부터
- 전환 기간 : 2024년 6월 14일까지
- 재사용 가능한 용기의 경우, 라벨 전환 기간 5년이 부여됨. (다만, 2023년 6월 16일부터 용기 앞면에 접착제로 부착할 수 없거나, 재활용 시 라벨이 유지될 수 없는 재사용 용기의 경우 뚜껑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

위반 시 조치사항

2024년 6월 15일부터 경고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포장 식품은 제조일과 관계없이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콜롬비아는 최근 정크푸드법 제정 등을 통해 설탕,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러 규칙을 발효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콜롬비아로 김, 라면, 인스턴트커피, 고추장, 과자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한다. 한국 가공식품 수출 기업도 2023년 6월 14일부터 식품 앞면에 영양표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므로 라벨 부착을 위한 영양소별 함량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라벨 오류 또는 미부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